



한국과학문화재단 나도선 이사장

## “과학과 대중사이의 거리 좁힐 터”

대담 \_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ahs@hankyung.com

▶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과학문화재단을 아는 국민들이 꽤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연히 새 이사장에 대한 궁금증도 클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인지, 혹 무슨 운명론적인 인연을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과학이 재미있고 연구가 좋아 평생을 과학자로 일했습니다. 약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 1979년부터 미국에서 생화학을 공부할 기회가 열렸고 과학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85년 귀국하면서 바로 KIST 유전공학센터에서 생명과학분야 연구에 몰두해 유전자 제조학 분야의 개척자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90년 울산의대로 옮긴 후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생명과학 연구자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동안 과학자로서 생명공학 분야에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연구 실적도 냈고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자로서 열심히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나와 국민

들을 위해 봉사할 때라고 생각해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공개 채용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큰일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지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과학문화재단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요. 오시기 전의 과학문화재단 비전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은 국가 혁신과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에 필요한 과학문화를 창달, 확산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사이언스 코리아’로 집결된 전국민대상의 전사회적 과학문화운동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과학문화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지난해가 전국민 과학문화운동의 도입, 정착기였다면 이제부터 과학문화운동의 성장, 확산기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과학문화사업을 면밀히 평가, 검토해서 내실화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해 과학 발전을 통해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과학문화운동의 지원·선도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단을 합리적, 민주적,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우리 나라 과학문화 창달을 이끄는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기관으로 키워가고자 합니다.

**▶ 이사장님께서 어느 모임에서인가 과학문화사업 전반에 걸쳐 '산업화를 통한 자율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더군요. 과학문화에 '산업화'라는 개념이 등장해 의아해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부주도의 과학문화사업은 국민의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해 왔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켜 과학문화 확산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기업 중심의 과학문화 산업을 성장시키는 정책으로 '민간 과학기술문화 기업 육성·지원'을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사업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과학문화산업은 과학을 콘텐츠로 하는 사업을 총칭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실험을 보여주거나 경험하게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몰려 들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설치하여 별자리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과학 체험 시설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충실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단은 과학문화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과학문화산업 시장분석 및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과학문화산업의 정의, 국내 과학문화산업의 시장분석 및 향후전망, 해외사례조사와 과학문화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및 산·학·연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과학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과학문화재단 사업이 너무 방대해 사실 주변에서는 부러움과 함께 질시의 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쟁이**

**다', '중복이다' 이런 얘기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현재의 사업군(群)을 재편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택과 집중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난 2004년도에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를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범국민적인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을 출범시키고 다양한 과학문화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사회에 다 필요하고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원이나 인력면에서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제 막 씨앗이 뿌려진 단계에 있는 과학문화사업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업부터 그 중요성에 비추어 사업을 정착시키고 내실화하는 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여나가기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충실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과학문화재단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더라도 사업의 성격상 자원 마련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원 마련에 무슨 대안이라도 있으신지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과학문화사업을 전 사회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과학문화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수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의 과세특례 및 제74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대상 기관으로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포함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해 기업 등 민간부문의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한 기부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과학문화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과학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과학문화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임 최영환 이사장께서 특히 역점을 두셨던 '사이언스코리아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은 미국의 '프로젝트 2061', '중국

의 2049 계획' 등을 모델로 과학을 발판으로 한국사회를 선진화시키는 범사회적인 과학문화확산운동입니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나라 전국에 과학문화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과 과학문화 확산의 가능성 및 과학문화에 대한 수요를 느낄 수 있게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사이언스 코리아 사업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과학기술 문화장달 5개년 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맞춰 다양한 민간주체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 과학문화도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과학문화 개념을 확산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복안이 있으신지요.**

과학문화도시는 지역기반의 풀뿌리 과학문화확산운동의 거점으로 전국 권역별로 주요 도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학문화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 그 파급효과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을 지역사회 모든 계층과 부문에 투입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의 과학기술관련기관·단체, 정부·공공기관이 파트너십을 이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투입이나 호응 및 관심도가 다르고 재단이 지원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선정된 과학문화도시를 내실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현재 과학문화도시와 전국에서 진행되는 생활과학교실을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 작업에 기초해서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 혁신의 방향과 조율하여 실천가능하면서도 발전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과학문화운동의 거점으로 선포된 19개 지역의 과학문화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과학교실, 청소년과학탐구반,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E-커뮤니티 도시, 과학문화행사 등 사이언스 코리아의 모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한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역별 특화 전략사업을 추진해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이러한 각종 과학문화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아나 저소득층 등의 소외계층에 일정 몫을 배분토록 함으로

써 과학문화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 이사장님 생각에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인식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과학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국회와 과학의 만남'이라는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호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가칭 '올해의 과학기술정치인상' 같은 것을 과학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 국회의원 중에 이공계 출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나 인식도는 높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회의원들도 과학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추세입니다. '과학기술과 국회의 만남'은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판단이 국가경제와 국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과학기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크게 '국회의원별 과학기술정책자문단 결성', '국회의원의 연구현장 방문활동', '국회 과학기술의 날 행사 제정' 등의 3가지 주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6월 중순경에 국회의원별로 5명 내외의 과학기술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과학과 국회의 만남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국회 과학기술의 날'을 제정해서 국회의원 전원과 다양한 전문 분야 과학기술인들이 만나 주요 과학 현안에 대해 토론, 논쟁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위원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총 39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책자문단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거의 70%에 육박하는 27명이 참여하겠다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올해의 과학기술정치인상'은 아직 계획은 없지만 과학과 국회의 만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국회의원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논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문화는 과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각종 시민단체의 등장으로 과학의 대중화가 촉진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정치적 목적하여 대중 선동적으로 움직이는 곳도 없지 않다는 평가도 나옴**

**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대 사회에서 과학은 우리 생활 대부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조차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사고체계를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의 발달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황폐해 진다는 부정적 견해와 막연한 두려움은 상당 부분 과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과학자와 일반대중사이의 의사소통 부재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자가 나서 과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과학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이는 과학을 잘 알고 있는 과학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나서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문제를 이사장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또 평소 생각해 오신 처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공계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은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힘들지만 마지막에는 보람 있게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을 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이공계를 공부해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역대 연봉을 받는 국내 유명 대기업 임원진의 절대 다수가 이공계 출신입니다. 해외 정치지도자와 유명 기업의 CEO들이 이공계출신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치, 사회, 산업계에서 이공계출신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즉 과학자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출분야가 다양하고 넓다는 것을, 또 과학적 소양이 없으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과학기술자가 자신과 긍지를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과 같은 과학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자의 처우 및 연구 환경의 개선은 많은 이공계지원자의 사기를 높여 줄 것입니다. 연구원의 연금제도 도입, 인센티브 재원

확보, 영구년직 연구원제도 도입, 출연 연구소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전공자의 공직 진출 확대 등 우수 과학 두뇌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해야 하며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달고 싶고 되고 과학기술인'이나 '과학기술홍보대사'와 같은 스타 과학자를 육성, 홍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일선 현장에서 연구를 직접 하신 분이기엔 마지막으 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동안 국내 과학기술정책과 R&D사업이 개별부처별로 산발,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종합조정기능이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혁신본부 출범 이후 각 부처와 관계기관이 성격과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혁신본부는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의 정책을 국가전략 목표에 따라 조정하고 필요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범부처적 접근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를 고려한 과학기술 정책 집행과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체제적, 집중적 지원 등의 시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한 과학자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과학계 우수 연구 인력의 70%가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가 많지 않아 과학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창의적인 연구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혁신본부출범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들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㉔

